

##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김 영 자

〈광주대교구인성회〉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의 해를 보다 뜻깊게 보내기 위해 마련된 기념사업중 맹인무료 개안수술에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고 이 지역 환자들을 만나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몇자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먼저 주님의 은혜에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된 해에 주님과 함께 눈먼 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빛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몇번이고 “주의 영광 크시기에 감사하나이다.”를 되풀이 했으니까요.

참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시어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만나 어루만져 주시던 복음의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랑의 주님께서서는 당신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약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자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믿을 뿐입니다.

이 지역에서 수술을 맡아주신 홍안과병원 의사 선생님과 간호원들도 본 사업을 통해서 오는 환자들 이 일반 환자들보다 시력이 잘 나오고 회복도 잘 된다고 의아해 했을 때,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얻었고 그래서인지 수술에 임하는 환자들(비록 신자가 아닐지라도) 하느님께 먼저 감사기도 드리고 수술 받으라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서슴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다는 데에 한편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거저 주신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선물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꽂차 있었읍니다.

개안수술을 신청해 오는 환자들은 가까운 광주 시민으로부터 산간벽지, 멀리 섬 주민에 이르러 이 땅 구석 구석까지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펴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었읍니다.

이런 가운데 한가지 회개해야 될 문제도 새삼 확대되어 왔읍니다. 환자들이 수술을 받은 후에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데 가까운 곳에 개신교외에 천주교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00주년을 지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땅 극변까지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벽지나 섬의 주민들은 제외하라고 하셨단 말인가? 정말 주님께 미안하고 그분들께도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지금 이 나라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도시나 읍내만 찾아갈 것인가? 생각할 때 반드시 그 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소외된 농어촌에 그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겸손되어 청해 봅니다.

200년전 우리 순교 선열들은 복음을 받아 들이고 전하기 위해 시련과 박해속에서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읍니다.

이 땅, 이 겨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 안에 빛과 소금으로 남아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인무료개안수술 사

업은 사회를 향해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려는 교회의 실천 의지를 드러내 주었는데 신자, 비신자 구별없이 혜택을 주었던 탓인지 이 지역의 수혜자 대부분이 비신자 또는 타교 신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우리)만이 잘 살아야겠다는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어젖힌 교회의 모습, 주님의 맘에 든 교회 본연의 모습이라고 믿기에 앞으로도 이런 이웃사랑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0월 말 현재 전남지역 수혜자 수는 92명(132안)이 완쾌되었고 현재 진료중인 환자와 수술결정된 숫자를 모두 합치면 배정된 목표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몇 분의 감동어린 이야기를 간추려 본다면 김재희(53세 : 전남 장흥)씨는 가난한 농부로 3년전부터 눈이 멀었으나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못해 얼마전에 낳은 손자 녀석 얼굴이 그리도 보고 싶었지만 겨우 만져보는 정도로 만족하다가 이제는 눈을 떠서 손자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까지도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했으며, 이순기(51세 : 전남 해남)씨는 부인이 천주교 신자인데 본인은 막 노동꾼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 마셨던 술이 차차 과음하게 되어 설명하기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천주교 집안인 처가집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술도 끊고 부인과 함께 열심히 하느님을 섬기고 살겠다는 의지가 대단했는데 간호원들 말에 의하면 이 분은 눈이 보이자 "이제 내 눈이 보인다"며 너무 기뻐 입원실 3층 복도를 어린애처럼 뛰어 다니더라고 했습니다. 또 맹아학교 한 여학생은 개인수술후 그 전보다 성격이 아주 명랑하게 바뀌더라고도 전해왔고, 전남 나주군의 어느 가정에서는 선천성 백내장으로 고생하던 8명의 가족이 혜택을 받는 경사가 났는가 하면, 의지할 곳 없는 홀몸으로 겨우 병원 문을 찾아온 환자들은 자원 봉사자들의 손길을 빌리기도 하는등 흐뭇한 형제애를 발휘, 보는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사람마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개인수술 수혜자들이 수술후 예비자 교리에 열심히 나가고 있

다는 소식과 아울러 영세 받았느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쁨의 뒤편에는 시력 회복불능이라는 선고를 받고 몸부림치는 환자를 보면서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고 전전 공공하던 괴로운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주여, 친히 저 이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소서"하며 내맡기는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서 나의 무기력함, 의술의 한계를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신앙의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50-70대였는데 현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노인문제의 일부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었는데, 죽을 날이 가깝고 경제능력도 없으니 그대로 버려진 노인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님께 이렇게 여쭙았어요." 주님! 당신은 젊고 쓸모있는 사람만을 사랑하십니까? 하고요. 그랬더니 "나는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들을 더욱 사랑하기에 더 가까이 있다"고 하시는 인간의 사랑과 비교도 안되는 계산없이 한없는 하느님 사랑앞에 회개하고 용기를 얻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도 기회를 드렸었는데 그분들 자녀들에게 큰 교육이 되어 결국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 부모님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더 뜨겁게 전해진 셈입니다.

이와같은 사랑의 메아리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져 광주 시내 오현성안과(부인만 신자)에서는 무료개안수술 자선사업에 동참하는 뜻으로 한 달에 1명씩 무료 시술을 자원해 와서 지난 7월에 1명이 끝나고 9월중에도 1명을 추천 시술 예정입니다.

때로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무지로 인해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찾아왔을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필요한 곳에 쓰도록 마련해 주신 주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누구에게나 기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수술 수혜자들 가정에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수술을 맡아주신 이 고장 흥안파병원장님이야 의사 선생님들, 간호원들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